

전북대 김윤영 교수, AI 전략 논의기구 위원 위촉

전북대학교는 사회복지학과 김윤영 교수가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통령, 상근 부위원장 임문영) 지역 태스크포스(지역 TF)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에 따르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9월부터 기술혁신·산업AX·공공AX·데이터·사회·글로벌 협력·과학인재·국방안보 등 8개 분과위원회를 가동해왔으며, 교육·보안·지역 분야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9월 23일 세 개의 TF를 추가 신설했다.

특히 지역 TF는 대통령 직속 지방사태위원회(위원장 김경수)와 연계해 지역 기반 AI 사업 및 정책 현안을 공동 논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역 TF는 중앙정부, 지자체, 대학, 산업을 연결하는 권역 단위 AX(지역 AI 전환) 거버넌스 허브로서, 지역의 전략산업·데이터 인프라·인재 생태계를 연계하고, 지속가능한 정주 기반과 균형발전형 산업 구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윤영 교수는 "AI 전환은 단순한 기술 실험이 아니라, 지역이 어떻게 성장하고 지속가능하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구조 혁신"이라며 "지역 TF가 5급 3북 구도 속에서 권역 간 연계와 초광역 혁신을 실질적으로 촉진하는 플랫폼이 되도록 정책 설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김윤영교수



전주시 인후2동 등, 김장김치 나눔 행사

전주시 덕진구 인후2동(동장 정소연)은 18일 인후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양우천)와 나누리(회장 김형기)가 함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에 김장김치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겨울을 앞두고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의 생활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협의체 위원들과 나누리 회원들이 함께 김장김치를 담가 독거 어르신, 한부모 가정 등 60세대에 김장김치를 전달했다.

양우천 인후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나누리와 함께 지역 인에서 의미 있는 나눔을 이어갈 수 있어 뜻깊다"고 밝혔다. /권희성 기자



남원중앙교회, 남원시에 700만원 상당 연탄 기부

남원시는 남원중앙교회(담임목사 정종승)에서 11월 18일, 7백만 원 상당의 연탄을 기부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중앙교회는 2021년 정종승 담임목사 부임 이후 해의 구호 활동을 포함해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나눔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연탄 기부 또한 매년 지속해 오고 있다.

정 목사는 "추운 겨울을 맞아 지역사회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올해도 연탄 나눔을 준비했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장수신협, 장수 보건복지센터에 겨울이불 전달

장수신협(이사장 권남주)은 지난 17일, 장수 보건 복지센터(대표이사 안만우)에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120리터 상당의 겨울이불과 담요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 활동은 전국 신협이 함께하는 "온세상 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됐었다. 신협 사회공헌재단은 전국 신협 및 임직원의 기부로 운영되는 공익재단으로, 2025년에는 전국 신협이 참여하여 지역내 나눔 온도를 높이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사회공헌사업의 의미를 더했다.

권남주 이사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추운 겨울을 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곽환우 기자

상호 신뢰 바탕, 안정적 운영 기틀 마련

군산시-시립예술단, '운영 안정화' 위한 단체협약 본교섭 체결

군산시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서비스노조 군산시립예술단지회가 시립예술단의 운영 안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단체협약을 18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체협약은 조례안을 둘러싸고 발생했던 시와 노조, 시의회 간의 이견을 해소하고 시립예술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지난 12월, 시의회는 시립예술단 운영 개선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이에 대해 시가 대법원에 무효확인 및 집행정지신청 건을 제소한 바 있다.

이후, 시와 노조는 2025년 6월부터 10월까지 총 8차례에 걸친 실무회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 나갔고,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법원에 계류 중인 조례안을 일부 수정한 새로운 조례안을 마련했다.

시는 조례안을 제27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했고 시의회가 이를 의결하면서 그간의 갈등을 일단락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상임·비상임단원 이원화, 사무국 신설, 사무단원의 근무시간 변경(10시~16시 → 9시~18시), 정기평정 개선 등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협약 이후 시는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을 취하하고 개정된 조례와 단체협약에 맞추어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완비할 계획이다. 김영민 군산시 부시장은 "이번 단체협약은 시와 예술단이 상생의 파트너십을 확인하는 소중한 결실"이라고 밝혔다.

이진배 군산시립예술단지회 지회장은 "오랜 시간 소통과 협의를 통해 이뤄낸 의미 있는 합의"라며, "조합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예술단이 되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김만호 기자

전북대병원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성과평가 'S등급'

전북대학교병원이 수탁 운영하는 전북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가 2025년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

개소 2년 만에 거둔 최고 성적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사업의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센터는 전북도청 위탁으로 2023년 8월 문을 연 신생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조직·인력 운영의 전문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감사 결과 이행 노력 등 여러 평가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운영의 타당함을 인정받았다.

특히 전북대병원은 도내 보건소와 의료기관, 학교 등과의 협력망을 촘촘히 구축해 알레르기질환 예방체제를 강화하는 데 힘써왔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주민 대상 건강증진 활동을 실질적으로 확대한 점이 높은 평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김소리 센터장(호흡기알레르기과 교수)은 "도민에게 정확한 알레르기질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결과



가 성과평가에서 좋은 등급으로 나타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전문 교육과 상담 기능을 강화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양종철 병원장은 "이번 S등급 획득은 전북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가 도민 건강을 위한 체계적 교육·상담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대병원 임상 의사 수료생, 호흡기 최고 권위자 논문 발표

전북대학교병원은 '노벨상을 꿈꾸는 임상 의사 양성 프로그램' 수료생이 호흡기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학술지인 American Journal of Respiratory and Critical Care Medicine(AJRCCM, 영향력지수 19.4)에 연구 논문을 게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18일 밝혔다.

AJRCCM은 미국흉부학회(ATS)가 발행하는 대표 저널로, 호흡기학과 중환자의학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로, 높은 학술 기준과 까다로운 심사 절차 그리고 최근 꾸준한 인용지수 상승은 해당 저널의 국제적 영향력을 방증한다.

이번에 게재된 논문은 제5회 프로그램에 참여한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1학년 오재용 학생이 연구팀과 함께 수행한 연구 결과로, 다발성 골수종 환자에서 발생한 폐 크립토평구스증(Pulmonary Cryptococcosis)의 진단·치료 과정을 면밀히 분석했다. 특히 COVID-19와 같은 급성 호흡기 바이

러스 감염이 진균 감염 위험을 높이고 치료 난이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연구는 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이경태 교수 연구팀과의 협업으로 진행됐으며, 폐 조직 검체의 원인 진균을 유전학적으로 규명하고 영상·조직학적 소견, 치료 경과, 800만 명 이상이 포함된 국가 COVID-19 코호트 자료를 종합 분석해 속발성 호흡기계 진균 감염의 임상적 중요성을 다각도로 확인했다.

오재용 수료생은 "교수님들의 세심한 지도와 지속적인 지원 덕분에 귀중한 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양종철 병원장은 "이번 논문 게재는 프로그램의 탁월한 교육 효과를 입증하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남원시, 비대면 진료 플랫폼 교육 진행

남원시는 지난 17일, '어르신 행복공간 스마트경로당' 구축 사업의 핵심 서비스인 디지털헬스케어(비대면진료)의 운영을 위해 전담인력 47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와 비대면진료 플랫폼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거점경로당이 있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간호직렬 직원과 경로당 매니저가 참여, 실습 중심 교육을 통해 스마트 경로당 운영 인력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스마트 경로당 사업은 교령층이 보다 편리하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디지털 기반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경로당에 설치된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담 인력의 정확한 이해와 숙련도가 필요하다. 시는 이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한우협회 김제시지부, 어려운 이웃에 사랑의 나눔 펼쳐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전국한우협회의 김제시지부가 18일 지역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50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전국한우협회 김제시지부는 한우나눔행사(2012년부터 매년 시행), 청소년 한우불고기 맛체험(2012년부터 매년 시행), 지평선 한우불고기 시식행사(2011~2024년 시행)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관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매년 한우와 성금을 기탁해 따뜻한 나눔에 앞장섬으로써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최승훈 전국한우협회 김제시지부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정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탁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지역사회 나눔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기탁된 성금은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북대 이지나 대학원생, 소아 설소에 단축증 연구 우수

전북대학교 치과병원 소아치과 이지나 대학원생이 추계학술대회에서 '소아 설소에 단축증 환아의 설소에 절제술 전후의 혀 기능 및 수면 관련 증상 변화에 대한 연구'로 우수 구연상을 수상했다.

18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 논문은 2022년 3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치과병원에 내원한 설소에 단축증 아동을 대상으로 설소에 절제술 전후의 혀 기능을 객관적인 지표로 측정, 설문을 통해 수면호흡장애 증상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평가했다.

연구 결과 혀 운동성과 혀 압력 등 기능적 지표에서 유의한 개선이 확인됐으며, 수면 관련 증상 또한 호전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설소에 단축증 환아의 치료에서 수술과 혀 운동 훈련(Myofunctional therapy)을 병행한 통합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됐으며, 이는 기능적 지표를 기반으로 한 근거 중심의 치료 방향 설정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지나 대학원생은 "이번 연구는 설소에 단축증 아동의 수술 전후 변화를 기능적 지표와 수면 증상 측면에서 정량적으로 분석한 국내 최초 수준의 연구로, 수술과 혀 운동 훈련을 병행한 통합 관리가 소아의 구강기능 회복과 성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소아의 성장과 구강기능 향상을 위한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소아치과학회는 국내 소아치과 전문의 및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학술단체로, 매년 춘·추계 학술대회를 통해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 /장은성기자



진안군·남원시의료원,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

진안군은 18일 남원시의료원(원장 오진규)에서 군을 방문

해 고향사랑기부금 2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진안군 의료원과 남원시 의료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각 200만원의 정성을 모아 상호 기부로 추진됐다.

이는 각 의료원이 지역 상생과 공공의료 협력 강화를 위해 추진해 더욱 의미가 크다.

양 의료원은 의료서비스 협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서도 함께 교류하며, 상호기부를 계기로 지역 의료기관 간 연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진규 원장은 "기부에 동참해준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상호기부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과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준석 군수는 "남원시의료원에서 보내주시는 따뜻한 나눔과 상생의 마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배준식·황순이 부부, 용지면에 사랑의 난방유 기부

김제시 용지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7일 배준식(전 용지면발전협의회회장)·황순이 부부 아너소사이터 회원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이웃을 위해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2,5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한파에 대비해 용지면 내 저소득층 100대에 총 2리터터의 난방유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배준식씨는 전북도 최초의 농민 아너소사이터(사랑의 열매 고액 기부자 모임) 121호 회원으로 꾸준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2월에도 배우자 황순이씨와 함께 용지면 저소득 주민을 위해 3,000만원 상당의 등유와 연탄을 기부한 바 있다.

배 씨는 "다가오는 겨울 어려운 이웃들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기자